

통일 플러스

통일 스토리

남북공감

민주평통 365

즐거운 통일

쉽표, 느낌표



##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



### 포커스①

####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

벌써 4월, 2015년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한지도 3개월이 지났다. 운동경기로 비유하면 한 쿼터가 지나고 이제 막 또 다른 쿼터에 접어들었다....

[더보기 →](#)



### 포커스②

한반도 안보, 동북아정세, 그리고 사드



### 통일 돋보기

북한-중국간 무역, 휴대폰 수입, 의류 수출↑



###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 통일Talk

한반도의 미래를 비추는 '통일별'을 꿈꾸다!



### 행복한 동행

남북한 '언니'들과 함께 걷는 따사로운 이 길!



### 골든벨, 뒷 이야기

"통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역사학도가 되고 싶어요!"



Today 남북  
북한의 패션,  
동계와 욕망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내가 누리는 것에  
책임을 지는 곳이 남한



직능별 정책회의  
직능별 정책회의에서  
통일대북 정책제안 '발발'



느낌 있는 여행  
푸른 숲에서 봄을 듣다  
전라남도 담양



통일 웹툰  
2036년  
통일대한민국 올림픽



통일 레시피  
바삭한 맛이 일품인  
황해도 김고추장구이



이벤트 당선작  
신뢰와 협력,  
인정과 공감의 행복 통일의 지름길



이벤트  
1. 통일에 물들다!  
2. 틀린 그림을 찾아라!





##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

안 득 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벌써 4월, 2015년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한지도 3개월이 지났다.  
운동경기로 비유하면 한 쿼터가 지나고 이제 막 또 다른 쿼터에 접어든 셈이다.  
겨울을 지나고 맞은 우리의 봄은 여름, 가을로 이어져 또 다시 겨울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생각이 있다.  
매번 반복하고 이야기 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견인불발(堅忍不拔)이라고 한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각자의 삶을 유지하며 경쟁해온 지도 어느 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편익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논의들 중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데 있다.

통일이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서로 다른 체제이다. 분단의 고착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해를 낳고 있으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관계란 말도, 통일이란 말도 없었을 것이다. 통일이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통일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통일준비 역시 남과 북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기에는 통일준비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총체적 노력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한반도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시대적 조류인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서 이탈국가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체제를 지탱하는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내구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북한관련 국제기구들의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외견상으로는 거창한 선전구호와 제국주의세력과의 강경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대외강경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 남북관계 긴장국면을 장기간 지탱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해서 북한이 체제내구력을 상승시키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시해왔다. 아직까지 북한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2015년 2월, 민주평통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남북 공동기념행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sup>11)</sup> 이 결과는 통일준비에 남북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4년이 ‘통일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져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다양한 부문에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다면,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통일기반을 구축해가는 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부터 줄곧 2015년 통일대전(統一大戰)을 이야기 해오고 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2015년 통일대전이 북한의 내부결속을 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통일준비 역시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여야 한다. 통일은 어느 한 쪽만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통일준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통일준비 역시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여야 한다. 통일은 어느 한 쪽만 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통일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통일준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남북간 노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북한의 대화와 태도가 요구된다.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 있으며...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통일준비와 관련된 남북간의 최소한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달리 보면 김정일 시대에 발생한 도발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자처한다면, 그리고 김정은이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임을 자처한다면, 아버지시대에 일어난 도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엉클어진 남북관계를 풀고 가난의 늪에 빠진 2500만 명의 주민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갈 용기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벌써 4월이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공세에 숨 돌릴 틈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좀처럼 편했던 날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통일준비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도 별로 없다. 한비자 세림(說林)편에 가인어월이구익자(假人於越而救溺子)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물에 빠진 아이를 멀리 월나라에 사는 사람을 빌려와서 구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나 하는 일이 아무리 기발하고 좋아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2015년,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항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모래위에 쌓은 탑’이 아닌 ‘공든 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5년 1/4분기 자문위원 통일외견 수렴 결과’(2015.3)

# 한반도 안보, 동북아정세, 그리고 사드

유용원(조선일보 논설위원 · 군사전문기자)



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본래 국방안보 사안이지만 정치 이념적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듯한 양상이다.

여기엔 중국의 압박과 반발이 큰 영향을 끼쳤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지난 2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지난달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도대체 사드 미사일 체계가 무엇이기에 중국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반발은 군사적으로 정말 타당한 것일까? 우선 사드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있어 종말 단계 상층 방어 미사일이다. 종말 단계는 적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다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과정으로 미사일 방어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MD는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사드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함께 마지막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인데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요격고도는 15~30km에 불과한 반면, 사드의 요격고도는 최대 150km(사거리는 최대 200km)에 달한다. 즉 사드는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길이 6.17m, 직경 34cm, 최대속도 마하 8.24(음속의 8.24배)로 1발당 가격은 110억원에 달한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이 탑재돼 있다. 1개 포대당 미사일 48발 이상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셈이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5000억~2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사드(왼쪽,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오른쪽) 등이 꼽힌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선 중요한 전략무기 요격수단이 코앞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 미사일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해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선 중요한 전략무기 요격수단이 코앞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 미사일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해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중국에서 발사된 ICBM이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는 비행고도가 10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통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은 한반도 북쪽 상공을 비행하게 된다.

중국은 사드 미사일보다는 레이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경우 중국은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중국 내륙의 ICBM 발사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드 레이더(AN/TPY-2)는 적 미사일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를 사용한다. 조기에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전진 배치(Forward Based)용과 적 미사일 낙하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 단계(Terminal Based)용이 있다.

전진 배치용은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지만, 적 미사일 요격을 직접 유도할 수 없다. 반면 종말단계용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해 사드 미사일로 하여금 요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탐지거리는 1000km 미만으로 짧다. 일본에 2기가 배치돼 있는 것은 전진배치용으로 탐지거리가 긴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종말단계용으로 탐지거리가 짧은 것이다.

## THAAD Area Defense



▲ 미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사드 방어 시스템이 요약돼 있다.  
(출처 : 미국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사드 레이더는 크기(면적)가 9.2㎡로 비교적 작아서 수송기나 트레일러 등으로 수송할 수 있다. 작지만 송수신 소자가 2만5344개에 달해 강력한 전파를 쏘아댄다. 이 때문에 2.4~5.5km 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의 전자장비를 훼손할 수 있어 안전지대 설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종말단 계층에서 전진배치용으로 8시간만에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는 맞는 얘기다. 두 사드 레이더의 외형은 똑같고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몇시간만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탐지거리가 더 긴 전진배치용으로 모드를 바꾸려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전파 발사에 견딜 수 있도록 일부 하드웨어도 교체해야 한다. 사드 레이더에 밝은 군 전문가는 “사드 레이더 모드 전환에는 적어도 며칠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레이더 방향도 쟁점사항이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 방향을 중국쪽이 아니라 북한쪽으로 고정시켜 놓는다는 계획이다. 사드 레이더는 360도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상배열 방식이라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켜 빔을 쏘는 방법을 취한다. 레이더 탐지 각도도 180도를 넘지 못하고 60~120도에 불과하다. 즉 중국쪽을 탐지하려면 레이더 방향을 중국쪽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얘기다.

기술적으로 레이더의 방향을 북한쪽에서 중국쪽으로 돌려놓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레이더만 달랑 돌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 뒤편에는 발전기와 사격통제 장비 등 각종 지원장비들이 배치되는데 이들도 함께 위치를 바꿔야 한다. 강력한 전파 때문에 안전지대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때문에 레이더 방향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레이더의 모드 및 방향 전환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 중국 부임을 앞두고 있는 김정수 주 중국대사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와 사드(THADD) 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제한된 미사일 요격능력만을 갖춘 중고 패트리엇 PAC-2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 도입되더라도 북한 후방지역에서 발사되는 노동 미사일에 대해선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패트리엇 PAC-3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 미사일을 1차로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드와 패트리엇 PAC-3로 구성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갖게 돼 북 미사일 요격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강국이 예의주시하는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사드문제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밝힌 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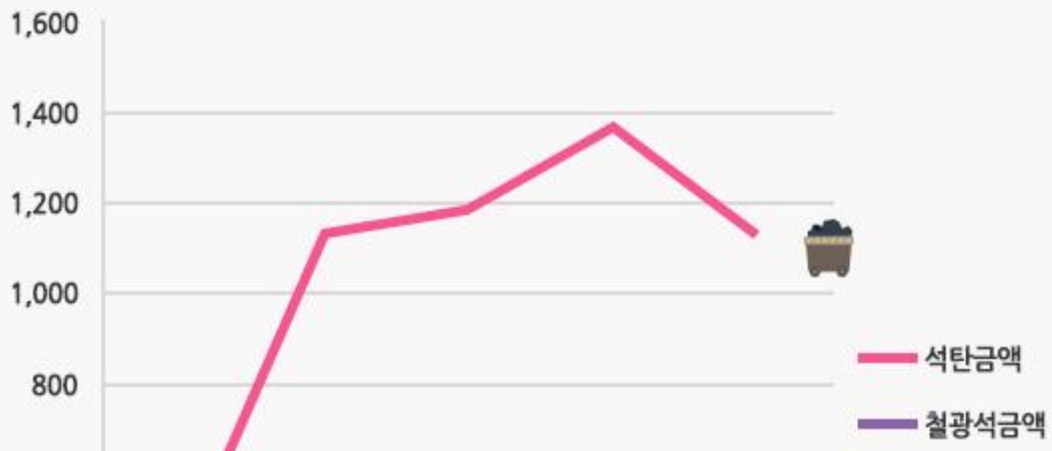
<사진제공 :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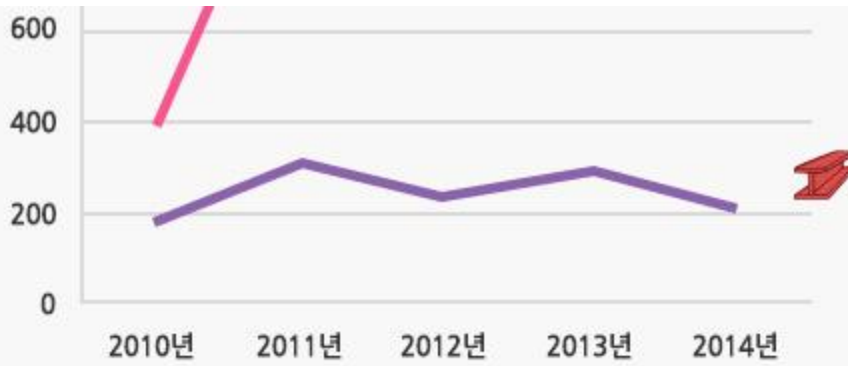


2014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폰 등 무선 전화기는 8,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6억 원 어치에 달했고, 이는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석탄과 철광석 외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답은 '옷'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3~5위는 남성코트, 남성재킷, 그리고 여성코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북중간 무역현황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 대중 수출

### 수출품 1·2위는 여전히 석탄과 철광석





※자료: KITA, 중국해관 / HS코드4자리 · 수출금액 기준 / 단위: 금액 백만 달러(US\$), 증감율 %(이하 동일)

## 수출품 3~4위는 '옷'



※OEM방식의 의류 임가공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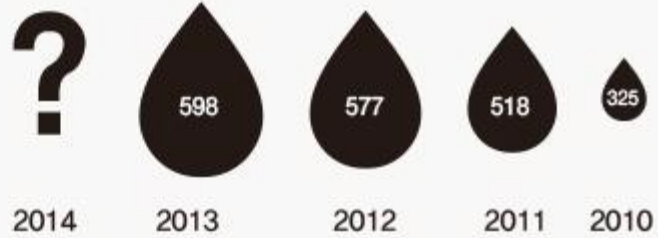


## 대중 수입

원유 수입량은 알쏭달쏭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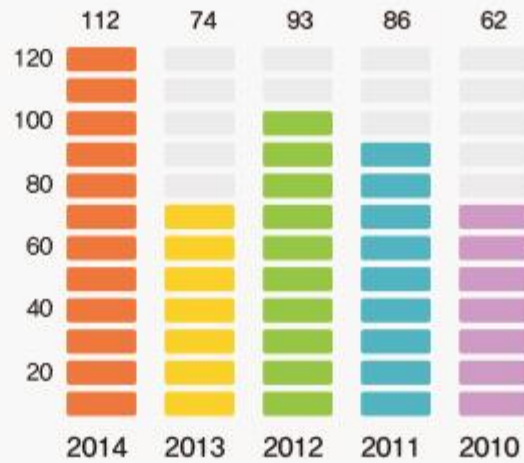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중국산 원유 수입액은 13개월째 0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말 '북중간 정상적인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원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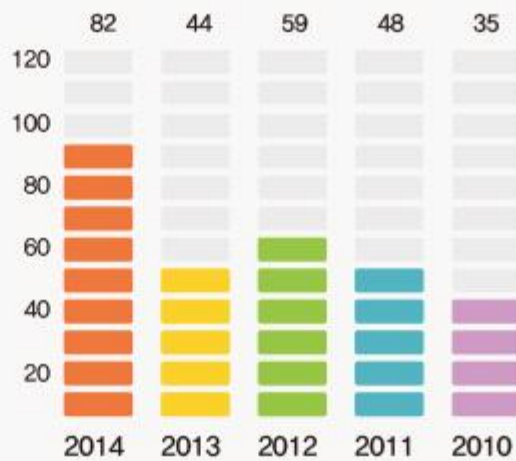
## 전화기 수입 폭발적으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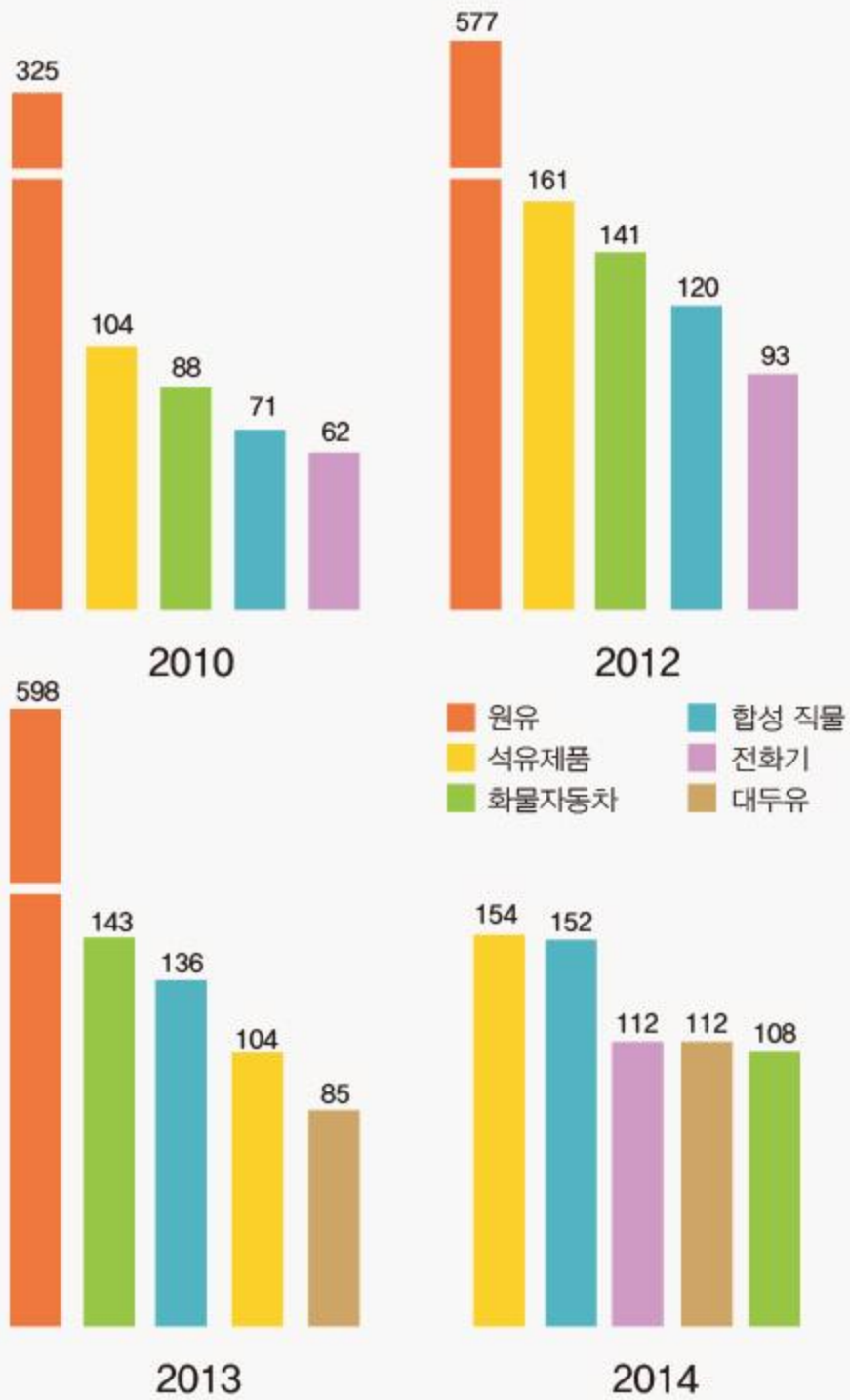
전화기  
(휴대폰 포함)



휴대전화



# 북한의 연도별 주요 대중 수입품목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갯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30)은 확실히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방송용(?) 캐릭터는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에는 반드시 눈도장을 찍을 만큼 ‘뜨고 있는’ 방송인 중 하나다. 벌써 한국생활 7년 차. 한국이 궁금해서 한국에 왔고, 이제는 한국을 떠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됐다는 원칙주의자, 다니엘을 만나 한국에서의 생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용기

다니엘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의 말에 끼어들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틀리다고 반박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 과정을 즐긴다. 그래서 고정출연 중인 토론형식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다니엘의 비중은 그리 크게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보낸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잘못에 대해 "80년이 지났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만큼 큰 잘못"이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도 그랬다. 방송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어도 다니엘이 생각하기엔 그렇다. 그런 다니엘의 담백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다른 외국인 게스트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 큰 울림을 줬다.



## 책으로 보던 신비의 나라, 한국

그리고 그런 '개념발언'들 덕분에 요즘 다니엘은 무척 바빠졌다. 빈 말이 아니라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방송 당일이면 반드시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기예능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 스카이스포츠의 '분데스리가 쇼'에 고정 출연하며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최근까지 기업의 강연도 다녔다. 또 잘생긴 외모 덕분에 화보와 인터뷰 요청도 잦아졌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방송물'을 먹었으면, 제법 '빈말'에도 요령이 생길 법 한데, 우리나라로 딱 서른이 된 이 청년은 시종일관 담백하기만 하다. 도무지 학창시절에도 흔한 '일탈행위'조차 안 해 봤을 것 같은 인상이라 멀고 낯선 한국 땅까지 온 이유가 궁금해진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때쯤 삼촌이 'KOREA'란 책을 선물해주셨는데 그게 90년 대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관한 책이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잘 모르는 나라였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국은 너무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그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결국 지난 2008년 고려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다녀간 후, 2012년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에 다시 입학하게 됐다. 그렇게 마침내 본격적인 한국생활이 시작됐다. 당연히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상만큼 신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 문화차이 극복 프로젝트, 선입견을 버릴 것!!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기에 '이방인'이란 기분을 느낄 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란다. 하지만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과정 역시 한국생활의 일부라 받아들였다. 최근까지 한 기업이 주최하는 강연을 통해 '문화차이'에 대해 강의도 했던 다니엘이 생각하는 문화차이란 결국 선입견이란다.

“나라가 다르니 문화도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문화차이란 결국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비교해서 나쁘다. 틀렸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성형문화요. 사실 독일은 성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형 자체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왜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 왜 한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책에서나 보던 제주도와 설악산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한국의 자연 그리고 사람이다. 사생활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친분 관계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친구들의 그 걱정과 잔소리까지 즐기게 됐다는 다니엘. 가능한 평생이라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 통일은 그리 남의 일만은 아니다. 대학 학사와 석사 논문 주제가 모두 북한 관련일 정도로 사적인 관심도 적지 않다고.



##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인내심과 이해심 **통일의 기본 조건**



“사실 독일에 있을 때는 한국은 물론 독일의 통일에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4살 쯤 통일이 됐을 텐데, 분단국가가 통일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독일의 통일에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역시 통일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독일이 갑작스런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겪었던 것을 거울삼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준비란 단순히 정책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조건은 인내심인 것 같아요. 통일이 되기까지도 그렇지만 통일이 된 후에도 인내심은 필요해요.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도 사람, 한국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생활에 적응했듯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대한민국은 휴전 중!!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 가져주길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이 통일 관련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렵고 까다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장의 연애나 취업, 외모를 가꾸는 일만큼이나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란 국회의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게 좋겠어요.”



## 우리 멋진 인생관을 가져봅시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에 대해 제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다니엘은 앞으로 지금처럼 꾸준히 방송에 출연하는 한편, 독일대사관에서 일하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의 일이다.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의 자연 속에서 살며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끝으로 다니엘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바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 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올바른 도덕적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사진\_ 권혜리 / 사진제공 : 인스타그램>

## 한반도의 미래를 비추는 '통일별'을 꿈꾸다!

전북대 통일동아리 '북극성'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세계의 밤. 유독 한반도의 북녘 하늘에만 진한 어둠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제도 인권도 아직은 칠흙같은 어둠인 이곳에 환한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건 바로 통일이다.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암연(暗然)의 땅, 그 위에 높이 떠서 통일의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 '북극성'. 이번 통일토크는 전북대학교 통일동아리 '북극성'과 함께 했다. 학업도 활동도 열심히 북극성 회원들과 브라운백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던 토크현장을 소개한다.

### 4월 통일토크 참가자 소개





## 청년 '별'들에게 듣는 통일운동 이야기

**박찬봉 사무처장** ▶ 공대동아리가 통일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건 상당히 멋진 일일 뿐 아니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학이야말로 통일과 가장 밀접한 분야죠.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공학도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아리 '북극성'과 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인환(북극성 부회장)** ▶ 북극성은 2000년에 전북대 공대 학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대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진전이나 퍼포먼스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형태로요. 그리고 다른 북한인권동아리나 단체들과의 연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청계천에서 전국의 통일-북한인권동아리들이 각자의 부스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에 참가해 북한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찬봉** ▶ 대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학우들이나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대학생들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태양** ▶ 세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 나오는 통계를 곧이 곧대로 믿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북한인권-통일 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학우들이 오며가며 들러 보고, 뭘 하는지 흥미를 보이며 물어봐주기도 하거든요.

**인환** ▶ 작년엔 학우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통일은 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북한의 현 체제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체제)을 돕겠다는 거냐며 오해하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민기(전년도 회장) ▶**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 것 같지만, 직접 나서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런 학우들에게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그들도 편안하게 몇 걸음쯤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박찬봉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일은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길 바라요. 그런데 동아리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승미, 인환, 태양 ▶** 축제 때 주점같은 걸 해서 수익금을 활동비로 쓰기도 하고 단체로 알바를 하기도 해요. 전 시 자재는 갖고 있으니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활동영역이 넓어져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땐 교통비가 좀 들지요.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다보니 큰 행사를 열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평소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해 홍보하고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많이,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멘토 별에게 듣는 통일, 그리고 북한인권

**인환** ▶ 그런데 처장님은 왜 통일운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박찬봉** ▶ 대학교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해서 졸업 후 통일부를 지원했지요. 그때가 광복 35주년 해였는데 올해가 벌써 70주년이네요.

**태양** ▶ 그땐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나쁘지 않았나요?



**박찬봉** ▶ 그랬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1984년에 대한민국에 수해가 났고 북한에서 물자를 지원해 준적이 있었어요. 그 일로 판문점에 가서 처음 북한 사람들을 봤는데 북한측 적십자요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정서도 같아서 '우린 같은 민족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록 70년간 분단됐다고 하지만 통일만 되면 통합은 바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통일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통일 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할까요? 통일은 주변 어느 나라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8천만 민족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결국 역할을 해야 해요. 마냥 기다리기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2천500만 북한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 이틀이 매우 절실합니다.



## 북극성이 비추는 통일한반도의 환한 미래

**박찬봉** ▶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태양, 인환, 민기** ▶ 북한도 장마당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처럼 조금씩 개방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나가면 통일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태양). '북한 차세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요(인환).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사람들이나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민기).

**박찬봉** ▶ 그렇죠. 북한을 변하게 하려면 북한주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고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해요.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인권 현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해서 북한 안팎에 그런 힘들이 같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집권세력이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북극성 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태양** ▶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전북대와 대전에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하면서 설문조사와 공연을 같이 했는데 주목도 많이 받았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대중의 그 관심이 쪽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환** ▶ 앞서 말씀드린 청계천 행사 때 날씨가 꽤 흐렸는데 이런 날씨에 누가 올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 부스를 찾았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규모의 북한인권관련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승미** ▶ 북한에 대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북극성 활동을 하면서 점점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 통일을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탈북민들을 만나보면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강해질까봐 경계하는데,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관심없어하는 것을 보고 당장 우리 마음부터 열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박찬봉** ▶ 통일은 옳고 그름의 관점, 이익과 손실의 관점 두 가지에서 살펴봐야 해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을 보면, 옳다고 여기고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이 더 정의롭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말씀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돼요. 통일은 의로운 일이면서 옳은 일입니다. 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지만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고 그게 바로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남북한의 장점을 결합시키면 엄청난 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통일은 옳은 일이면서 이로운 일이므로 통일을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학생들이 하는 북한인권운동, 통일운동 역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가장 멋있고 정의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각자에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글.기자희 / 사진. 나병필〉



## 북극성 회원들에게 통일, 그리고 북한이란?



### 북한인권이란? 통일의 길이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동아리 뿐 아니라 전국의 관련단체들과 연합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규모있는 행사도 열어 많은 이들에게 인권문제를 알리고 싶어요.



### 통일이란? 관심이 있을 때 이뤄진다!

대학동아리인 북극성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북대 학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딱딱하지 않게, 즐겁고 가볍게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천해보고 싶어요.



### 통일이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것!

처음 북한인권에 대해 알아갈 때보다, 2년 뒤인 요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통일대박'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이슈 등을 봐도 확연히 달라진 걸 느껴요. 이런 관심들을 모아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 통일이란? 무조건 해야 하는 숙제다!

통일은 군사,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므로 당연히, 무조건 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 통일이란? 양손이다!

분단된 국가는 그냥 왼손, 오른손일 뿐이에요. 한 손만을 이용하면 불편하고 훨씬 힘이 많이 들어요. 반대로 양손을 써서 하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꼭 같은 민족이어서라기 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이뤄야 해요.





'언니'는 동생에게 가끔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보다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와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 되기도 한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 줄 것 같은 이름, 언니.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회로 뛰어 들어온 탈북여성들에게도 언니가 생긴다면 이들의 정착과정 또한 큰 부침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에 탈북여성들과 '자매'처럼 어우러져 지내고 있는 경기 안양시협의회 여성 자문위원들을 만났다.



## 탈북여성과 함께 음식점 경영하는 이숙란 자문위원

### 식당개업하면서 '선미언니' 채용

이숙란 자문위원이 '북한언니' 선미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안양시협의회에서 탈북민들과 단양으로 여행을 갔을 때다. 함께 버스를 탄 선미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남한에 온 뒤 주로 식당에서 근무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숙란 자문위원은 그 뒤 몇 개월 안 있어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고 곧바로 선미 씨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 식당에 오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불러주면 좋죠'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와보시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 다니고 싶다고,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개업 이후 얼마간은 경황 없이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세달 췌가 됐을 무렵 이숙란 자문위원은 선미 씨에게서 남한 사람과 다른 면을 보게 됐다. 평소에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직설적인 화법이 문제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저녁에 식당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보통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마무리 좀 지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을 하는데, 선미 언니는 ‘끝났으니까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란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야,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해줬어요.” 이후 선미 씨는 남한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점차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한다.

## ‘정말 괜찮아?’ 탈북민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 달라져



가끔 선미 씨의 동료들이 식당에 찾아와서 화장품이나 영양제 등을 선미 씨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했지만,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을 선미 씨가 덜컥덜컥 사주는 것 같아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이숙란 자문위원은 “언니 인터넷 들어가봐. 이거 그렇게 비싼 물건 아니야.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고 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선미 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담당 형사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말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다 써버려서 없다고 하시라고 조언해드리기도 했어요.’”

이숙란 자문위원은 선미 씨가 성실하고 생각도 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름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시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퇴근할 때마다 이숙란 자문위원이 먼저 가시라고 해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맘에 걸린다면 항상 기다려주곤 한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미 언니, 너무 좋다’고 말하면 의외라는 듯 ‘정말 그래?’라고 되묻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숙란 위원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도 맘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라고 대답해 준다고. 그러면서 점차 주변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선미 씨는 이숙란 자문위원의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5대보험에 가입하게 됐고 다른 직장에서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숙란 위원은 탈북민을 채용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손을 내밀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언니도 저도 서로 돕고 복돋아주고 그래요. 언니처럼 열심히 하려는 사람과는 정말 손잡고 가고 싶어요. 아직은 식당 규모가 작아 여러 사람을 채용할 순 없지만, 이런 분이 또 계시다면 다른 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 함께 일하면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작년 11월 단양에 함께 여행을 갔고 망년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사장님이 좋고 일하기도 편해요. 매일 함께 있고, 같이 퇴근하면서 툭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데,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우면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장사가 잘 돼서 번창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겠지요. 제 후배 탈북민 한 명도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그만두곤 해요. 지금도 지방의 한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는데, 저처럼 월급제로 꾸준히 일을 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 탈북여성들의 든든한 동네 언니 조정숙 자문위원

###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처음봐요”



조정숙 자문위원은 영진이와 소은이 등 두 명의 탈북학생 멘토링을 맡고 있고 이 지역 젊은 탈북여성들의 ‘왕언니’ 역할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만 해도 단양에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조 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됐다.

그 중 영진이 엄마 수경 씨와는 영진이의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멘티보다 오히려 친해진 경우. 남한에 온 지 13년 된 수경 씨는 생활력이 강해서 좀처럼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작년 가을에 단양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조정숙 자문위원이 영진이의 중학교 교복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한사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교복을 받은 대신 밥을 사겠다고 하며 헤어졌다. 한 달 뒤 수경 씨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수경 씨는 남편이 현재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부가 함께 대형마트 근처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조 자문위원은 가게 입지선정이나 주요 메뉴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수경 씨는 그게 고마웠던지 조 자문위원에게 ‘언니’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들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영진이는 그런 엄마가 낯선듯 ‘엄마 왜 이렇게 이야길 많이 해?’라고 물으며, ‘엄마가 외부사람과 이렇게 많이 대화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의존성향 강한 은미 씨에게 준 건 자신감과 정(情)

또 다른 탈북여성인 은미 씨는 민주평통에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 와서 조정숙 자문위원이 멘토링을 맡게 됐는데, 다소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서인지 조 자문위원에게 유독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

“언니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요’라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딸거라면 학원비를 대줄 수는 있지만 전세금은 못 대준다고, 사람은 형편에 맞게 그때 그때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조정숙 위원은 대신 전자렌지를 이사 선물로 사주었다.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은미 씨는 남겨두고 온 자식들 생각에 명절이면 더 큰 외로움을 느꼈고, 조정숙 자문위원은 힘들어 하는 은미 씨의 모습이 마치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만 했다. 그래서 설 전날에도 음식을 싸들고 은미 씨를 만나러 갔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바쁘게 살다보면 우울한 감정도 없어져. 애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아무도 그 연을 끊지 못하니까, 가슴 아파도 참고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찾아와야지.”

어느 날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며 하소연하는 은미 씨에게 “네가 이쁘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야. 속상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너”라고 말해보라며 용기를 주기도 했다. 요즘 조정숙 자문위원은 은미 씨가 보내오는 ‘언니 알라뷰~’ 문자나 ‘언니, 오늘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된다고 한다.



## 남편까지 멘토링에 뛰어들게 한 멘티 소은이

민주평통에서 맺어준 멘티는 아니지만, 조정숙 자문위원은 소은이라는 탈북여대생의 멘토링도 맡고 있다. 소은이는 북한에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로부터 '아빠도 없고 엄마는 행불자인데다 가난하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해 먼저 한국에 왔었던 엄마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조정숙 자문위원 부부는 소은이의 이모, 이모부가 되어주기로 하고 작년 입학식 날 학교에 함께가서 축하해 주면서 선물로 노트북을 사줬다.

"이건 졸업 때까지 공부를 잘 하는 조건으로 미리 사주는 졸업선물이야. 공부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오빠(조정숙 자문위원의 막내아들)에게 물어보면 돼."

그런데 소은이가 어느 날은 시무룩한 얼굴로 나타났다. 탈북자모임에서 이화여대에 다닌다고 하니까 '졸업이 나 잘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조정숙 자문위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잘하라고 격려는 못할망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소은이에게 학업이 정 따라가기 힘들면 중간에 한두 학기정도 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고 격려해주었다. 또 3학년 때까지 높은 학점을 유지하면 친 아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부상으로 배낭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소은이의 얼굴에 금세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소은이 엄마는 소은이를 남한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24시간 마사지 숍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잠을 잔다. 소은이도 이런 엄마의 노고를 알기에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조정숙 자문위원이 탈북 여성들과 지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각 차가 크다보니 짐작하지도 못한 데서 오해가 생겨 상처를 받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란 걸 알기에, 크게 마음을 쓰진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소낙비가 되기보다는 가랑비처럼 촉촉하게 젖어 들고 싶은 게 왕언니 조정숙 자문위원의 바람이다.



"사람들은 탈북민들과 같이 가다보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피투성이로 왔어요.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 사선을 넘어 온 사람들이잖아. 너희 안엔 너희가 모르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남한에서 성공할 수 있어라고요."

조정숙 자문위원은 중국어 '평요우(친구)'라는 말을 좋아한다. 은미 씨나 영진이네, 소은이네를 보면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오랜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 뒤 우울감을 호소하는 중년의 친구들이 많은데, 조정숙 자문위원은 젊은 탈북여성들과 사귀면서 생활에 더욱 활기가 넘친다.

"내가 힘들 때 '언니 힘내요'라는 그 친구들의 말이 힘이 돼요. 아들이 그래요. '엄마 요즘 그 누나들이랑 즐겁게 살아? 행복해 보여'라고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무뚝뚝한 아들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글/사진. 기자희>



“역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전에는, 통일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사에는 관심이 적었어요. 미래의 통일보다는 대학입시, 취업 등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회에 참가한 후 제 안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올해로 5회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통일골든벨’. 특히 지난해에 전국 448개 고등학교에서 총 26만 명의 학생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단순히 역사와 통일 관련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신 안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배우며, 성장하기도 한다. 지난 해 ‘최후의 1인’에 올랐던 오소연 학생 역시 이 대회를 통해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말한다.



### 역사가 좋아서, 통일을 꿈꾸다

자타공인 ‘역사광’인 소연이가 ‘역사·통일골든벨’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유는 그저 역사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대학 전공 역시 역사관련 학과로 일찌감치 정했던 터라, 재밌지 않을까란 호기심이 계기가 됐던 것. 그렇게 가볍게 시작된 도전은 2학년 때 지역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이듬해 ‘최후의 1인’이 되기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됐다고 말한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포맷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나중에 너도 나가보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도 ‘그때까지 저 프로가 하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대회에 제가 나가게 된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군포시의 지역예선은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학생 중에 결승에 올라가는 애들이 누굴 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참가한 첫 번째 대회의 결과는 예선 탈락. 그렇게 포기했다면, 그저 학창 시절 재밌었던 추억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 수험생이 된 후 다시 대회 공고를 보고 도전장을 던지면서 또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했다.



## 실패를 통해 도전을 배우고, 마침내 자신감을 발견하다

소연이에게 두 번째 대회 참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시험과도 같았다. 평소 역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진로를 정하기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소연이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상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아 내가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할 수 있구나’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근현대사나 통일 관련 문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역사 전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스스로 대회 참가여부를 선택한 만큼 시험 준비 역시 자발적으로 했었기에 성취감이 더 컸다고 말한다.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갖게 된 소연이는 2015학년 성신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신입생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 내겐 너무 어려운 '격동'의 근현대사

사실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대회 참가 전에는 역사학을 지망했던 소연이에게도 근현대사만은 마냥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말한다. ‘격동’이란 표현처럼 복잡하게 사건들이 얽혀있기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연대기를 달달 외우기에도 숨찰 정도였다고.

“근현대사를 ‘격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단기간 동안 엄청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데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가장 분분한 시기도 하고, 그렇다보니 근현대사에 관련한 공부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평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출출이 연대기를 외우기만 했지, 한국전쟁, 남북분단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대회 참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기 시작한 남북한 분단의 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도,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아직도 정치적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남북분단은 그냥 근현대사의 사건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가, 현실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 통일은 남 일이 아닌 내 일 그리고 우리 일

그 덕분인지 대회가 끝난 후에도 남북한의 문제와 관련한 국제 회담이나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책임감 역시 갖게 됐다고 한다.

“사실 주변을 봐도 통일을 의식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될 듯 말 듯. 통일이 쉽진 않은 문제니까요. 하지만 보통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의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의 임무 중 하나란 생각이 들어요. 다가 올 통일 역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될 테니까요.”



통일이 된다면, 지금은 책이나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유적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란 사실에 설렌다는 소연이. 하지만 소연이가 통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북한에 계시대요. 생사를 알 수도 없고, 할아버님 본인 역시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지만, 통일이 된다면 꼭 찾아 뵙고 싶어요. 저한테도 가족인 셈이잖아요.”



##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 서적도 쓰고 파

통일이 잘 모를 때는 멀고 생소하게만 보이지만, 반대로 알면 알수록 또 자신과 가까운 일임을 느끼게 된다는 소연이. 덕분에 소연이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책을 쓰는 일이다.

“역사에 담긴 의미 중에 진실을 찾는 일이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한 글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류나 왜곡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제가 자신감이 생긴다면 역사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이왕이면 통일이 된 후 우리나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담은 책을 쓰고 싶어요.”



## 후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학생 신분엔 걸맞게 학과 공부에 충실할 생각이다. 또 역사답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 또한 잊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역사-통일골든벨'을 준비 중인 후배들을 위해 조언도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회 참가 전에는 전교 1등하는 애들이나 결승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되더라고요. 잘 모르는 문제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주자면, 문제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답이 한자인 경우엔 단어를 설명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 맞는 한자 단어를 조합해 본다는 식이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글/사진. 권혜리>



## 북한의 패션, 통제와 욕망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패션, 도덕적 통제의 대상

북한에서 패션은 도덕적 통제의 대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의복은 개인의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이지만 북한에서는 정치사회적인 생활 영역이다.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제된다. 어떤 머리 모양을 하건, 어떤 옷을 입건 간에 사회적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미풍양속',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북한의 교양방송물 가운데 '이런 현상을 없앴시다' 시리즈가 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제의 건전한 교양방송물이다. '이런 현상을 없앴시다' 시리즈 중에는 패션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정서와 미감에 맞는 옷차림을 하자'는 주제로 제작된 <겉멋이 들어>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다.

내용은 이렇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집단으로 견학가기로 한 날 주인공 현옥은 남보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잡지에서 본 옷을 보면서 영문로고와 표범이 그려진 문양을 점퍼에 새겨 넣고 싶었다. 수예연구사인 친구를 불러 문양을 새겨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친구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냐', '어쩐지 우리의 미감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별스럽다'면서 거절한다. 현옥은 친구가 야속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점퍼차림에 나팔바지를 입고 역으로 나섰다. 기차역에서 현옥을 옷차림을 본 동료들은 한결같이 '별스럽다'며 흉을 보았다. 현옥은



▲북한의 교양방송물 '이런현상을 없앴시다<겉멋이 들어>

옷차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서 '내 조직을 위해서 갈아입고 오겠다'면서 집으로 향했다. 드라마의 결론은 '사회주의 미감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으로 끝난다. 1988년에 제작된 방송물이지만 최근에도 방영되었다. 복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교양물이다. 북한에서 패션을 통제하는 이유는 옷차림에 도덕성과 의식이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옷이 그 사람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해이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체로 북한에서 권장하는 복식은 단정함과 간결함, 실용적이면서 기능성을 갖춘 것이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미감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옷차림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민족성이 결합되었다. 사회주의적 미감에 더하여, 조선옷을 통해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자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하는지는 교양방송이나 옷 전시회,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통해 인민에게 제시한다. 남한 주민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꼭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같은 옷을 입는 것을 선호한다.



▲꽃무늬를 수놓은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

북한처럼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튀는 옷차림은 곧 조직의 단결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난 이후 의복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복을 입거나 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옷차림도 차이가 많아졌다. 시장을 통해서 일부 상류층에서는 고가의 외제 옷을 구매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영한 것이다.

## 복식, 통제와 균열 사이의 줄다리기

북한주민의 옷차림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정책에 따라 바뀐다. 기본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 짓는 남한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가 국가이기에 북한 주민의 의복은 정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옷차림을 뒷받침할 옷감이 생산되어야 한다. 옷을 생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의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급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의 옷차림 변화는 곧 북한 체제의 정책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천리마 시대에는 여성의 의복은 짧게 입을 것을 권장하였다. '짧은 치마는 보기에도 좋고 활동에도 편리하며 천도 많이 절약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긴치마는 '잔치를 할 때나 명절 같은 때 그리고 외국손님을 맞이할 때 예복으로 입을 것'을 권장했다.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1980년 초반 김일성은 평양시민들의 옷차림이 다양하지 못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평양시민들이 화려하고 맵시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옷차림을 되는대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도시가 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공업 분야의 일꾼들이 시민들의 옷을 여러 가질 색깔로 꼭 맞게 해 입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여성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까지 하였다. '여성들은 자기 몸매와 계절에 맞게 모자와 수건도 쓰고 꽃양산도 쓰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다. '생김새와 나이, 직업에 맞게'라는 애매한 테두리를 정하기는 하였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적인 영향으로 축소되었던 옷차림은 최근 들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와 같지는 않게 서양의 캐릭터나 상표가 붙은 옷차림이 등장하였다. 정책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옷차림이 규범에 맞지 않으면 '생활총화'나 '단속 통제 사업'을 통해 규제한다.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옷차림과 몸단장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본다. '단정한 외모'는 사람들의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돌구워 준다'는 것이다.



▲ 평양의 패션

복식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 미감에 맞는 옷차림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옷차림이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봄철 '위생활간'(3월-4월)을 맞이하여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의 옷차림 등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기가 사는 집과 거리와 일터를 알뜰하게 꾸미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우리 식'대로 고상하게 하여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좋게 보고, 미니스커트나 가슴이 좀 패인 옷은 부정적으로 본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해서도 남한에서 유행하는 스키니 진이나 야한 의상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 🛍️ '단정'과 '다양'의 모순을 파고드는 미감(美感)의 욕망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것은 예술단이다. 1980년대 중반 보천보전자악단원들이 화려한 복장과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다면 2008년 이후에는 삼지연관현악단, 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악단이 새로운 패션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2년에 등장한 모란봉악단의 패션은 주목거리다. 연주곡목과 퍼포먼스도 관심이었지만 패션도 주목을 받았다. 화려했다. 세련된 미모와 공주풍의 드레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진 어깨선과 새글이 드러나는 과감한 연주복, 허벅지가 드러나는 반짝이 초미니 원피스는 한층 젊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북한 주민이 일상으로 접하는 텔레비전도 화려해 졌다. 방송화면도 화려해지고, 첨단 모니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출도 이루어졌다. 도시 건물도 회색을 벗고 밝은 색으로 갈아입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밝아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평양 주민의 옷차림은 갈색계통의 어두운 색이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색깔도 다양해지고 한층 밝아졌다.



▲ 모란봉악단 공연



▲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공연



리설주의 등장도 매우 이채로웠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에 걸맞게 세련된 패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이라는 사회'와 '퍼스트레이디'라는 단어의 결합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세련된 모습이었다. 세련된 패션은 김정은 시대의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알리면서 세련된 여성상을 만들었다.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북한 당국에서 제시하는 옷차림은 시대의 미감에도 맞으면서도 인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복정책이 인민의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정해진 규격에 따라 짧고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려는 주민들의 발길도 끊

이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는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옷차림이 많아지는 모양이다. 남조 선풍으로 불리는 옷차림도 많아졌다. 남한 드라마에서 유행한 패션이 그리 긴 시간을 지나지 않아서 유행할 정도라고 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악을 만들어 내는 생활양식'이라고 규정해도 감각적인 세련미를 쫓고자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세상만사가 모두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한 가지를 가지면 또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게 이치다. 다만 얻는 것과 포기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지를 따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다. 자유와 편리함을 얻은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질 줄 아는 것, 바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다.

## “남한 아이들이나 깨진 바지 입고 다니지”

2009년에 남한에 온 아주머니 A씨는 올해 스물 다섯 살 된 여대생 딸과 아직도 옷차림 때문에 다투곤 한다.

“애가 자꾸 깨진 바지를 사와가지고... 깨진 바지 몰라요? 청바지 일부러 찢은 거, 북한말로는 깨진 바지라고 해요.”

북한에서 미싱사를 했었다는 A씨는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옷을 표시 안나게 잘 기울 수 있는 ‘소문난’ 기술자였다. 그런데 아이가 친구들과 옷을 사러 간다더니 ‘찢어지고 무릎이 뺨 나온’ 옷을 들고온 걸 보고 기가 찼다.

“북한에서는 깨진 옷 입고 다니면 재 남조선에서 왔네, 이러거든요. 언젠가(1984년) 남한에 큰 수해가 났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남한 생활이 완전히 열악해서 우리가 남한을 도와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 옷 입은 애들을 보면 아직도 남한 아이들처럼 입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딸의 헤어스타일도 A씨에게는 스트레스다. 단정하게 올려 묶고 다니면 좋을 텐데, 풀어 헤친채 양 옆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닌다는 것.

“그렇게 하면 얼굴이 가름해 보인대나요. 선호도가 너무 다른 거죠. 북한에서는 얼굴형이 둥근 보름달 같아야 환하고 이쁘다고 하거든요. 가름하니 삐죽하게 말랐으면 먹지 못하는 집 애라고, 여비었다고 말해요.”

## 자장면처럼 새까만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가정주부인 A씨는 남한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떡볶이와 자장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도대체 왜 떡에 고춧가루를 묻혀서 먹느냐’고 대뜸 묻는다. A씨 동네(함흥)에서는 ‘암만 없는’ 살림이라도 설 명절 때 만큼은 떡을 3~4가지 해먹는데, 떡에 양념을 묻혀 먹진 않는다고.

“차레지널 떡에 어찌다 붉은 반찬양념이 묻으면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서 버리잖아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일부러 빨간 걸 묻혀서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자장면도 마찬가지다. 함흥은 중국과 거리가 멀어 면장(춘장)을 본 적도 없었고, 면요리는 주로 감자농마국수를 먹는다고 했다.

“소면이 중국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먹으려면 수준이 돈냥이나 있어야 해요. 만약 소면을 먹는다 해도 잔치국수 육수처럼 맑게 만들어 먹지 까맣고 걸쭉한 소스에 비벼가지고 먹진 않거든요. 자장면 색이 너무 검다 보니 먹고싶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A씨도 자장면을 즐겨먹는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적응 안되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냉면이다. 진짜 함흥사람으로서, 함흥냉면은 진짜 그 맛이 아니란다. 함흥의 신흥관에서 먹는 국수(냉면)는 달지 않고 새콤하며 시원해서 맛있는데 남한의 냉면은 너무 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흥지방에서 쓰는 면의 원료인 감자이야기도 들려준다.

감자는 함경도의 장진호 근처 농장에서 주로 가져오는데, 이 지역 이야기가 좀 슬프다. 장진호는 땅이 척박하고 해비침률(일조량의 북한말)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6월까지도 솜옷을 계속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운 곳이다. 그런데 6.25전쟁 때 미 해병사단이 매복한 중공군과 맞닥뜨리게 되어 최대 7,000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초가집을 허물고 개발을 했어도 얼음의 땅, 장진호 근처 만큼은 영원한 오지로 남아 65년 전 전사자들 역시 아직도 외롭게 그곳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A씨는 말했다.

## 편리한 아파트 생활 뒤편 관리비가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왔고 이듬해 딸과 함께 남한으로 와서 남편과 재회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다 정리해서 살기 편하고 아늑한 집으로 꾸며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1년 좀 지나서 샤워실 선반을 자세히 봤는데 화장품, 샴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갈색통이 있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초콜릿 소스더라고요.”

또 식료품 배달업을 하는 남편이 하얀색 등치 세 봉지를 받아왔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곰팡이가 피어서 버렸는데, 알고보니 그게 모짜렐라 치즈였으며 가격이 꽤 비싸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땐 아까운 치즈도 다 버리고, 아빠는 초콜릿 소스를 화장실에 두고 살았다며 가끔 가족끼리 웃곤 해요.”



이런 일도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에 수납공간이 필요했던 A씨 가족은 노원역 근처 목공소에서 판자를 사다가 공구를 이용해 선반을 만들었다. “그냥 사이즈에 맞는 가구를 들여놓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땐 그걸 몰랐던 거죠. 이상하다 했어요. 공구를 이웃집에서 빌리려 했는데 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A씨는 남한의 아파트가 살기 편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서 없는 ‘불편함’도 있다고 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왔을 땐 너무 좋더라고요. 김일성지도 못주는 집을 남한에서 주나,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데 집도 다 준다 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조금 큰 소리라도 날라치면 소음이 발생한다며 곧바로 방송이 나오고, 매월 임대료나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게 좀처럼 적응이 안됐다고 한다. 또 ‘꽃밭’도 있고 경비아저씨기 주민들을 지켜주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정원 관리비나 경비 용역비도 다 임주민들이 낸다는 걸 나중에 알고는 ‘내가 소유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한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자신이 마치 시골 사람처럼 느껴지고, 무슨 말만 하면 ‘여기도 70년대엔 그랬는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싫었다고 한다. 특히 TV에서 예능프로그램을 보다가 사람들이 웃는 이유를 잘 모를 땐 답답하기만 했다고. 하지만 남한생활 6년차인 이제는 어렵듯이 알 것 같기도 하다. “타이어 같은 걸 허리에 메고 막 달리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참 할 일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젠 적응이 좀 됐는지, 아 즐겁게 살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는 돼요.”



<글. 기자회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 직능별 정책회의에서 통일·대북 정책 제안 ‘활발’

2015년 제1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월 1~2일 제1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경제, 환경, 문화예술, 체육, 학교육, 청소년 6개 직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예상보다 많은 17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강조



▲ 현경대 수석부의장

박성배 대전부의장 ▶

직능별 정책회의 1일차 행사는 박성배 대전부의장의 환영사,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특강,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 분임별 정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이나 주변국의 움직임을 볼 때 통일은 상당히 빨리 올 수 있으며, 통일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역설하며 “자문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 통일준비에 공감, 열띤 분임토의 분위기 이어져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통일구상,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통일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수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또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말 한국 최초로 통일음반을 발표하면서 통일가수로 데뷔한 김 교수는 이날 강에 앞서 자문위원들의 요청을 받아 '휴전선'이라는 곡을 즉석에서 열창하기도 했다.



▲ 김영수 교수

정책회의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분임별 정책회의는 소주제별 6개분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분임별 주제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가 투입돼 회의 진행을 도왔으며, 자문위원 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통일운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 6개 직능 분임토의 결과

경제, 환경 직능 '남북한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방안'



△전략적인 대북정책 추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기조 유지 △동북아 지정학적 환경을 활용한 정치경제적 주도권 확대 △남북한 경제적 격차해소와 북한에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의 당위성 형성을 위한 노력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 인프라구축 지원 등

## 문화예술, 체육 직능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 형성방안'



△남북한 음악 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 △남북한 상설 체육 교류 △민간교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간 연대방안 수립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파악·해결 등

## 학교육, 청소년 직능 '통일준비와 통일 미래세대 육성방안'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생활 속 참여 중심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의 시공간적 확대 모색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연대 및 협력 강화 △학생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정기행사 개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 통일한국의 의미와 4행시 우수작

### 나에게 통일한국이란? 우수작

- **밥이다.** 밥을 만들 때는 어머니의 정성과 농민의 피땀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처럼 통일한국도 피, 땀, 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경수)
- **커피다.** 왜냐하면 삼박자가 맞아야 하니까. 단맛, 쓴맛,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지듯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최석연)
- **수학문제다.** 처음에는 문제를 받아들면 풀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반드시 답이 나오듯이 통일한국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진선옥)

### 통일한국 4행시 우수작



- 통일을 앞당겨 보자고 봄비 맞으며 왔어요. 일전에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기를 **한술밥** 먹고 **똥굴어**야 형제라 했지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술밥 먹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최삼자)
- 통성명만 해도 일사천리로 친해질 수밖에 없는 **한민족**이라는 우리들의 다정한 모습을 국제사회가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김승민)
- **통큰** 일등국가 **한국**을 위한 **국민대표** **민주평통** 16기 **자문위원** 사랑합니다.(권신일)

## 직능별 정책회의 참가 소감!

### 자문위원

**고연화(충남 공주협의회)** 북한관련 소식을 매스컴에서 보고는 있지만 자세히 와 닿지 않는데 김영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북한 현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통일이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광모(서울 서초구협의회)** 올해까지 3번째 정책회의에 참가합니다. 올 때는 늘 남북통일에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협의하고 싶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경청도 하는데 아직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의무라는 생각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일(경남 양산시협의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6개 분야를 책임지고 회의를 하는데 현실에 맞는 의견들을 잘 선별하고 반영해서 실제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통일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진혁(대구 달서구협의회)** 2030 청년위원 대구대표로 민주평통 활동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골든벨의 후속타로 통일슈퍼스타 케이와 같은 다양한 통일문화콘텐츠가 쏟아져서 통일문화를 형성하면 건잡을 수 없는 통일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분임토의 사회

**이정우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국에서 자문위원들이 골고루 오셨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임토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 모두 관심이 많아요. 지역별로 교육 활성화 방안과 해법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의견들을 중앙사무처에서 수용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제시하고 지역차를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의가 끝난 뒤까지 계속 의견들이 개진되는 등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현경대 수석부의장 미주 청년컨퍼런스 참석, 쿠바문화원 방문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된 '2015 미주 청년컨퍼런스'에 참가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이 준비하는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현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주역인 청년 위원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22~23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해 한인 후손들과 통일대화를 나눴으며, 한인후손문화원을 방문해 라파엘 막시모 폴랑고 부원장을 만나 한인후손문화원 건립을 승인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쿠바 한인후손문화원은 민주평통 중미·카리브지역협의회가 주도해 협의회 소속 13개국 자문위원들의 기부금을 모으고 코트라 아바나무역관의 지원, 호세마르티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작년 8월 문을 열었다.

한편,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24일 달라스협의회의 통일강연회에도 참석해 한국전 참전 용사와 주요 한인 인사들에게 북한의 인권개선이 한반도 통일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는 통일구상을 소개하며, "통일은 남북한에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통일 및 북한인권에 관심' 당부

민주평통은 4월 3일 재외공관장회의를 위해 고국을 방문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조찬을 겸한 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유홍수 주일본대사, 안호영 주미대사, 임성남 주영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각국 대사들을 비롯해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180여 명이 참여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익을 위한 외교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성과를 치하한 뒤, 통일을 위한 노력,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은 통일준비를 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제17기 해외 자문 위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해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저우협의회, 해외 통일골든벨 첫 스타트!



해외협의회 가운데 올해 최초로 중국 광저우협의회가 3월 29일 제4회 통일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광동성 11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사회, 일반상식 및 북한관련 지식 분야의 실력을 겨뤘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광저우한국 학교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으며, 지난 대회와 다르게 단체상을 추가해 각 학교의 단합을 유도하고, 참가 학교 교사로부터 문제를 취합한 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상에는 광저우한국학교가 단체상 1등을 차지했으며, 고태우, 서혜나 학생이 각각 초등부, 중고등부 대상을 차지했다.

## 3~5월까지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전국 개최



2015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가 3월 10~11일 전남지역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자문·건의 및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자문위원 연수는 시·도 단위로 1~2회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전남에 이어 충남(12~13일), 충북(17~18일), 전북(19~20일), 경북(20~21일), 강원(23~24일), 울산(26~27일), 대전(27~28일) 등에서 개최됐다.

## '여성 통일 생생 기자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전국 각 지역의 여성 통일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들려줄 '여성 통일 생생 기자단'이 출범했다. 민주평통은 4월 3일 사무처에서 40여 명으로 구성된 '여성 통일 생생 기자단'을 대상으로, 여성 통일리더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온라인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자단 워크숍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생생 기자단은 연초 시·도 여성위원장 회의와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에서 여성 통일활동시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회의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시·도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사 작성, 사진 촬영, 페이스북 등 SNS 활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생생 기자로서의 포부와 활동의지를 다졌다.

##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부산 금정구협의회



▲ 광주 광산구협의회

부산 금정구협의회는 3월 12일, 광주 광산구협의회는 18일 지역주민, 자문위원, 해당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통일시대시민교실'을 열었다.



▲ 부산 강서구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부산 강서구협의회는 3월 23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5 강서구 통일지도자 통일공감강연회'를 열었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는 24일 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다.



▼ 경북 청송군협의회

서울 금천구협의회는 3월 25일 관악농협 주부대학생 등과 함께 '2015 통일시대시민교실 관악농협 주부대학 개강식'을 열었으며, 26일에는 경북 청송군협의회가 27일에는 강원 철원군협의회가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서울 금천구협의회

## 통일미래세대 육성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경남 남해군협의회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는 3월 7~8일 자문위원 및 2030 대학(원)생들과 함께 김포, 파주일대에서 '2015 젊은 통일 아카데미 및 DMZ 국토순례'를 개최했다. 경남 남해군협의회는 3월 25일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2015년 대학생 통일포럼 및 통일동아리 결성식'을 열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대전 중구협의회



▲ 전남 화순군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는 3월 3일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열었으며, 전남 화순군협의회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 경남 지역회의협의회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경남 지역회의협의회는 3월 5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경남경찰청-민주평통 경남 지역회의MOU체결식'을 열었으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는 27일 경기북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시청공무원 등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경남 통영시협의회



▲ 서울 노원구협의회

경남 통영시협의회는 3월 13일 탈북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서울 노원구협의회도 24일 관내 탈북민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차 민주평통이 함께하는 장학나눔 마주보기'행사를 개최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는 3월 14일 멘티 청소년 및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같은 날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멘토자문위원 가족, 멘티와 멘티 가족, 학교교사 등과 함께 영화 관람을 다녀왔다. 또한 충북 옥천군협의회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운영위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전주한옥마을 등으로 '행복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 ☀ 탈북민 돕기 사랑의 바자회



▲ 경기 양평군협의회



▲ 대구 북구협의회



▲ 전남 무안군협의회

경기 양평군협의회는 3월 21~22일 '탈북민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으며 대구 북구협의회는 3월 30일 관내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대구강북경찰서 관계자 등과 함께 '희망의 물품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전남 무안군협의회는 3월 21일 무안백제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2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려줬다.

### 지역 봉사활동



▲ 서울 강북구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 광주 서구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는 2월 27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상품 전달식'을 갖고 다른 관내 3개 단체와 함께 마련한 상품을 강북구청에 전달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는 3월 14일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나눔 국수봉사'를 실시했으며, 광주 서구협의회는 23일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 강원 지역회의

충북 청주시협의회 ▶



강원 지역회의는 3월 11~15일 몽골 거주 한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복70주년을 맞아 계르 1등을 전달하였고, 올란바토르 학생에게 등록금을,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는 학용품을 전달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는 30일 청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강원 횡성군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강원 양구군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는 3월 18일 홍천읍 일원에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개최했으며, 양구군협의회와 횡성군협의회도 20일 새봄맞이 환경 미화활동을 전개했다. 경기 의왕시협의회도 21일 백운산에서 '통일 염원 견기대회 및 환경보전 대청결운동'을 펼쳤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는 23일 세계물포럼 대비 봄맞이 관내 대청소를 실시했다.



▲ 경기 의왕시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동일문화 사업



▲ 강원 정선군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강원 정선군협의회는 2월 26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3.1절 기념 정선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으며, 대전 서구협의회는 3월 1일 '광복 70주년 3.1절을 맞아 '현충원 참배 및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 서울 강동구협의회

◀ 충북 영동군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는 3월 5일 이수공원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정월대보름맞이 평화통일기원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서울 강동구협의회는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통일염원 강동구민 연날리기대회'를 열었다.



▲ 전남 목포시협의회



▲ 부산 영도구협의회



▲ 경기 용인시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부산 영도구협의회는 3월 15일 밀양 간월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등반대회'를 실시했으며, 경기 용인시협의회는 25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판문점)를 견학했다. 전남 목포시협의회는 3월 26~27일 임진각에서 국가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합수 합도제' 행사를 개최했고, 제주 지역회의는 3월 27일 여성 통일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자문위원, 지역 여성 오피니언 등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부는 통일맛이 바람!' 행사를 열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주니어평통 대장금 경연대회 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는 3월 28일 '주니어 평통 통일교육 및 통일주제 대장금 음식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니어 평통 학생과 친구들 7~8명씩 한조로 총 5개조가 경연을 펼쳤으며 행사 취지에 걸맞게 '통일김밥 커리라면, 함흥냉면', '평화통일 잔치라면과 사랑으로 만든 통일보쌈' 등 재치 있는 요리 제목들을 선보였다. 1등은 '평화통일 잔치라면'을 요리한 김다운 학생 팀이 차지했다.

### 칭다오협의회 광복70주년 평화통일염원결의대회 개최



중국 칭다오협의회는 3월 28일 자문위원, 통일동아리홍보대사, 학부모 등과 함께 광복70주년 기념 평화통일염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통일동아리홍보대사 350명을 대표해 방대군 학생대표(이화한국학교 고등부)가 '조국의 평화통일에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며 한중 우호관계를 굳건히 하여 통일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제4회 통일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열어 국외외국어학교 이가영 학생에게 고등부 대상을 수여했다.

### 광저우협의회 광동성 한국학교, 한글학교에 도서기증



중국 광저우협의회는 최근 광동성 교민자녀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광동성 한국학교, 한글학교 도서를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교민 자녀들의 의식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역사, 세계역사, 통일관련 최신 도서로, 총 8개 한국학교가 도서를 지원받았으며, 기증식은 지역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격려 속에 중업식과 개학식 등의 일정을 이용해 이뤄졌다. 특히 광저우한국학교에서는 신 교사 확보건립 기금 전달식과 도서 기증식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 광저우협의회 심천 통일강연회 열어

중국 광저우협의회는 3월 9일 이희원 전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을 초청해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올미년 세계속의 한국'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는 동아시아 안보정세, 세계 경제 비중의 변화와 전망 설명을 비롯해 70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주광저우 대한민국총영사관, 양창수 총영사를 비롯한 각 한인단체 대표와 동포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 보스턴협의회, 주UN대사 초청 북한인권세미나 개최



미국 보스턴협의회는 3월 13일 오준 주UN대사를 초청해 '세계, UN 그리고 북한'을 주제로 한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준 대사는 지난해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감동적인 고별연설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버드 법과 대학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자문위원과 한인동포 외에도 하버드대, 브라운대, 보스턴대, 버클리대, 플레처스쿨 등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준 주UN대사는 강연에서 "북한의 전제적인 인권탄압 정치는 하루속히 불식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일방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북한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지원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북유럽협의회,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열어



북유럽협의회는 3월 21일 뒤셀도르프에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통일강연회, '차세대와의 대화', 사진전 등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권세영 본분관 총영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외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차세대와의 대화 시간에는 차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통일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으며, 일제와 광복, 건국, 6.25, 근대화를 관통하는 지난 70년간의 사진전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긴 가뭄 끝에 만난 봄비에 젖어든 오월은 푸르렀다.  
찾아든 빗줄기 사이로 바라 본 대지와 산 그리고 강은 푸른빛에  
잠겨든 채 조용히 계절을 맞이한다. 옛 선비의 고고한 기개를 닮은 대나무,  
그 대나무가 울창한 대숲이 아름다운 도시 전라남도 담양의 봄. 담양의 봄은 눈이 아닌 귀로  
시작된다. 긴 옷자락을 끌며 대나무 숲을 거니는 바람의 걸음걸이, 웅기종기 모인 장독대와 넓은  
마루아래 가지런한 디딤돌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화려하게 만개한 후 미련 없이 자리를 비우는  
동백의 마지막 기척. 봄의 소리를 귀로 담으며, 푸르른 숲을 거닐었다.

## 대나무 숲에 봄비 훑날리던 날, '죽녹원'

담양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대나무일 것이다. 실제로 담양은 오래 전부터 대나무고을이  
라 하여, '죽향(竹鄕)으로 불려왔다. 허리를 곧추세운 채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올라간 대나무가 울창  
하게 숲을 이룬 곳. 담양의 죽녹원은 그 이름처럼 18만여㎡에 이르는 대지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  
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쏙쏙한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숲, 그 자체다.





▲ 죽녹원 대나무 숲

그 특성상 사철 푸르지만, 계절의 온기를 머금은 채 흔들리는 대나무는 유독 싱그럽다. 서로의 살갓을 부비는 대나무 잎의 사그락거림은 도심 속 소음에 지친 귓가를 느긋하게 다독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차분히 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 샌가 보이는 건 오로지 대나무만 가득한 숲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제야 낯선 듯 낯익은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숨을 들이 마시고, 다시 내쉬고. 바람이 지날 때, 가슴 속에 쌓아만 뒀던 탁한 숨을 실려 보낸다. 그리고 새 숨을 가득 품는다.

8개의 테마로 나뉜 그리 길지 않은 산책로를 걸어도 좋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좀 쉬어가고 싶다면 산책로 곳곳에 놓인 나무 정자와 벤치를 이용하거나, 죽녹원 한쪽의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설렁설렁 구경한다. 한옥체험장을 비롯해 담양의 이름 높았던 선비들이 기거했던 처소나 정자를 고스란히 재현한 공간으로 넓은 뒷마루에 턱 하니 걸터앉아 간간히 울리는 풍경소리를 감상하기에 좋다.



▲ 죽향문화체험마을 송강정



▲ 죽향문화체험마을 명옥헌 원림

오늘의 평온함을 위한 어제의 이름,  
**‘관방제림’, ‘충혼탑’**

죽녹원 앞쪽으로는 제법 물길이 드센 담양천이 흐르는데, 이 담양천 너머 담양의 오래된 숲길 하나가 더 자리하고 있다. 바로 관방제림이다. 천연기념물 제 366호로도 지정되어 있는 관방제림은 수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방이다. 조선 인조 26년, 사나운 담양천의 물길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그 위에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관방제림이 됐다. 느티나무,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 등 현재는 보호수 177그루가 자생하고 있으며, 긴 세월을 살아 온 만큼 두 팔을 힘껏 뻗어도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품채 좋은 고목들이 길손의 머리 위로 긴 그늘을 만들어 준다.





죽녹원과 인접해 있으며, 관방제림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관어공원은 담양 시민들의 쉼터이자, 벚꽃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숨은 명소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충혼탑이다.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눈을 감아야 했던 호국영령들을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로 담양의 현충시설답게 12개의 대나무모양 기둥이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선을 붙잡는다.

흔히 담양의 매력을 전통이라고 표현한다. 옛 것을 소중히 지켜왔다는 도시, 그 도심이 한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한 충혼탑. 지금껏 지켜 온 전통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전통 역시,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름다운 이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 숲을 지나 만난 또 다른 숲, '메타세쿼이아 길'

빗방울이 흩어질 때마다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벚꽃을 뒤로 하고 다시 2km 정도 되는 관방제림을 끝까지 걸어, 도로 하나를 건넌다. 다시 또 숲길이다. 길 위에서 만난 새로운 길. 이번에 만난 길의 이름은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낙엽침엽수인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으로 늘어선 산책로는 마치 숲속에 들어선 듯 아늑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선보이지만, 이맘때라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만끽하길 추천한다.

또 긴 산책로는 연인들이 손만 마주 잡고 걸어도,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영화와 CF 등이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영화 '역린' 속 정조 임금의 서가로 등장했던 존현각 세트장이 바로 이어져 있다. 실제 존현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도가 심했기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세트를 재현했다고 하니, 한번 쯤 쉬어가도 좋겠다.





▲ 메타세쿼이아 길

## 자연이 주는 최상의 사치, '소쇄원'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제법 호쾌해 오후의 노곤했던 정신을 두들겨 깨우기엔 손색이 없다. 기대보다 아담한 공간. 하지만, 머물수록 감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소쇄원이다. 조선중기 호남 사림문화를 이끈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정원(휴양을 위하여 경치 좋은 터전을 골라 따로 마련한 집)' 가운데 하나로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 소쇄원



▲ 폭포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양산보가 속세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겠다는 뜻으로 조성한 곳으로 크게 내원과 외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 소쇄원은 내원을 뜻한다. 특히 '비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방, '광풍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원림의 품취가 압권이다. 광풍각의 넓은 툇마루에 앉아 계절을 품고 떨어지는 계류를 보고 있다면 무릉도원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 오래 씹을수록 향기로운 밥

신선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정경에 취한 사이 슬슬 시장기가 올라온다. 속세에 살아가는 인간인 즉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겠는가. 이왕 담양까지 발걸음을 했으니 대나무 요리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할 것 같아, 대나무 죽통밥 집으로 향해 본다.

쫄득하고 감칠맛 있는 밥 한 수저를 한 입 가득 물자 대나무 향이 솔솔 피어오른다. 오래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오르는 밥 한 술에 지역 명물인 떡갈비 한 점을 올려 먹으면, 비로소 담양 여행이 완성된다. 기회가 된다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연한 죽순 요리 역시 놓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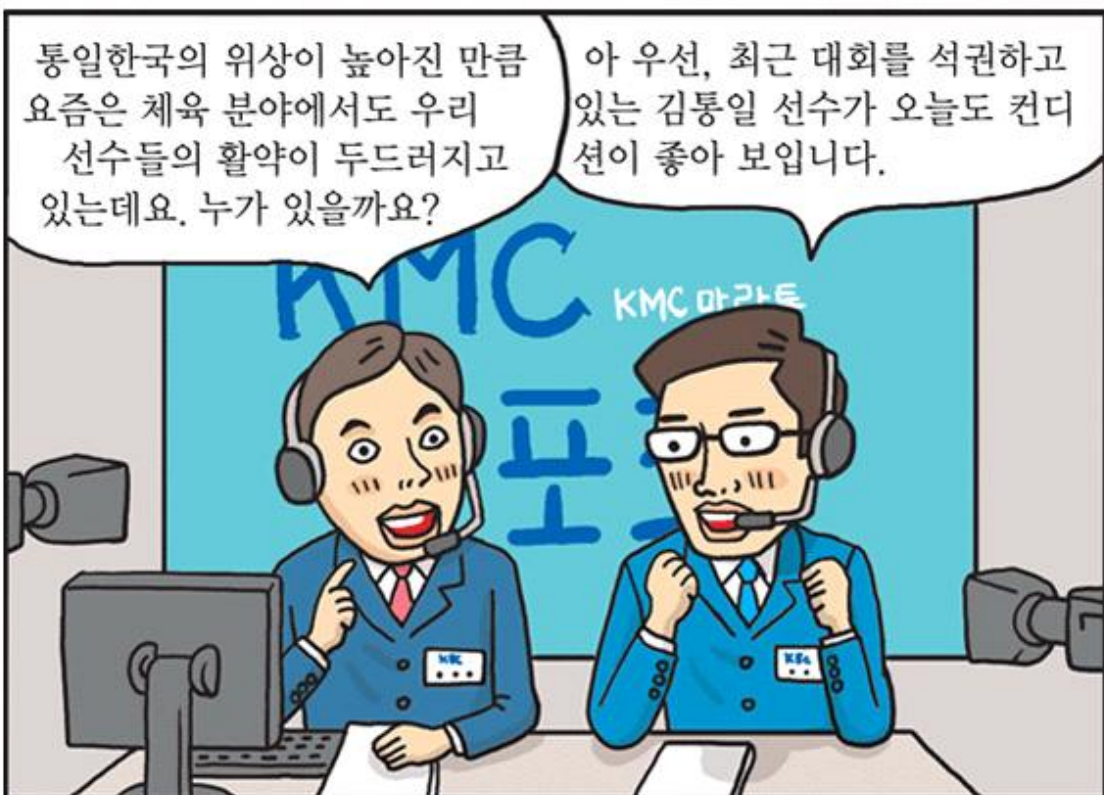
## 숲을 거닐다 숲을 품다

담양의 봄은 푸른 숲이다. 푸름을 쫓아 걷다 보니 새로운 푸르름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 속 대사처럼 여행을 시작할 때 사막처럼 황량했던 마음속에도 어느덧 나무숲이 우거지기 시작한다. 그 숲엔 신선한 바람이 불고, 나른한 햇살과 넉넉한 나무 그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풍요로운 숲, 그 숲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 2036년 통일대한민국 올림픽

이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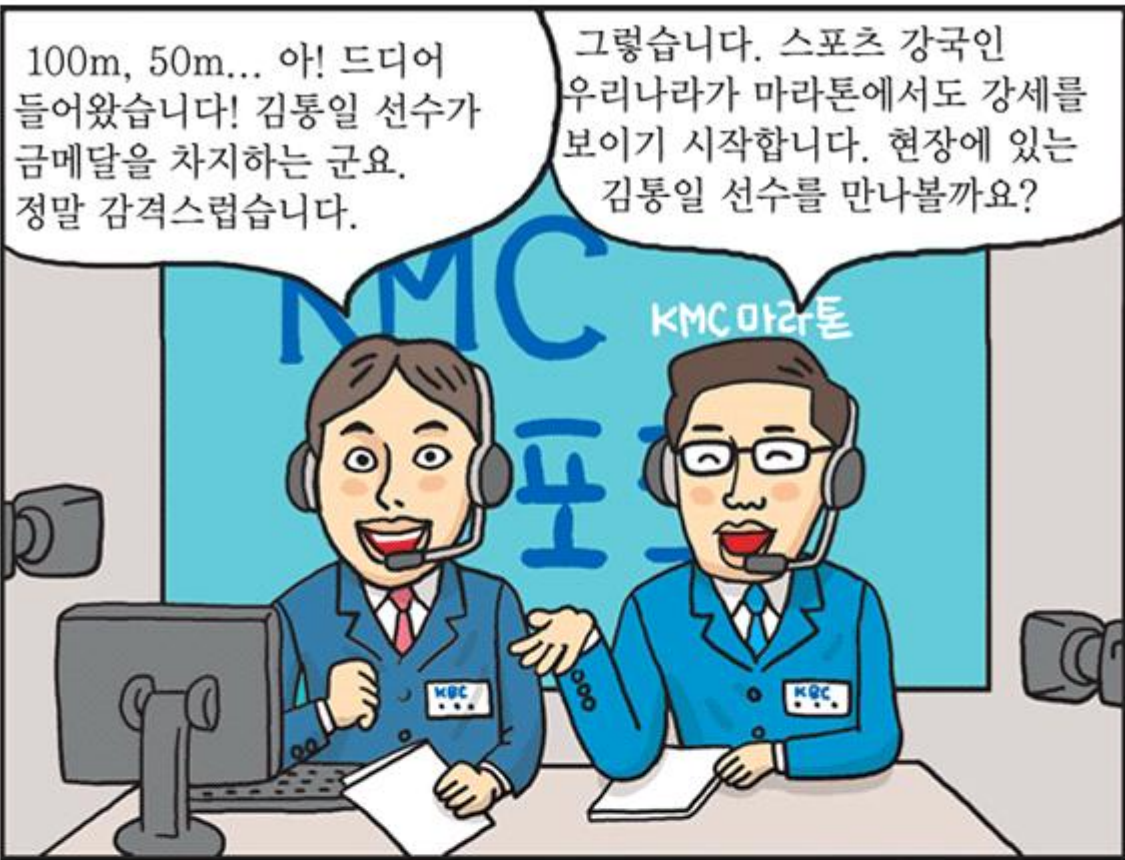
아, 이제 선수들이 통일 전 남북한의 경계선이었던 지역을 넘었습니다.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경기는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력을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 한국 마라톤계의 샛별인 김통일 선수가 앞을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쪽쪽 달리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뒤를 이어 선두그룹을 형성한 선수들 역시 우리 선수들이군요.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황해도 사람들이 자주 만들어 먹는 김고추장구이는 찹쌀가루와 고추장, 물을 섞어 찹쌀 풀을 만든 후 김에 발라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다시 찹쌀 풀을 바르고 통깨를 뿌려 말리는 음식으로 바삭한 맛이 일품이다.

### 요리재료

요리재료 : 김 6장, 찹쌀가루 2큰술, 고추장 1작은술, 물 4큰술, 통깨 약간, 참기름 약간, 실고추 약간



### 요리방법



1 찹쌀가루와 고추장 물을 볼에 한데 넣어 섞은 후 냄비에 넣고 약불로 저어가며 찹쌀 풀을 쑤다.

2 김 한 장에 찹쌀 풀을 바른 후 그 위에 김 한 장을 더 얹고 찹쌀 풀을 바른 다음 통깨를 뿌려 소쿠리에 말린다.



3 꾸덕꾸덕한 상태가 되면 뒤집어서 찹쌀 풀을 바르고 통깨를 뿌려 말려준다.(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고 건조기를 사용해도 좋다.)

4 빠삭 마른 김은 참기름을 발라 구운 후 잘라서 실고추로 고명을 올린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 요리연구가\_나 유 신



### 새머느리 음식 솜씨, 김 요리로 평가

김을 비롯한 해산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이 발달한 황해도는 웅진 일대가 유명한 김 생산지로, 다른 지역보다 김 요리가 발달했으며 기호에 맞게 김 요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옛날 이 지역에서는 새머느리를 맞이하면 김 요리를 시켜보고 음식 솜씨를 가늠하기도 했다고.







## 신뢰와 협력, 인정과 공감이 행복 통일의 지름길

글\_ 노호룡

'신뢰와 협력', '인정과 공감'만이 행복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봅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언어의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남과 북에서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지역마다 다른 남과 북의 사투리는 통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숙제를 잘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남과 북의 자원과 특산품을 더욱 잘 활용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를 공동개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모든 열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 통일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셋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츠, 문화융성의 대국을 이루기 위한 교류는 지금부터 즉시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스포츠를 통한 교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가장 잠재되어 있는 달란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DMZ 평화지역을 개발하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곳으로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북아 평화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행복한 통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려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남과 북이 협력을 아끼지 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발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갖고 있는 장점은 함께 나누어야 할 미래자산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서로의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신뢰와 협력의 프로세스 아래 하나 되는 세계 속의 코리아를 꿈꾼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언제나 위기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강해졌던 코리아!

이제 행복한 통일의 길은 얼마나 인내하며 견디고 서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코리아! 그 열매는 통일!로 답해 줄 것입니다.



## 통일을 준비! 저 이렇게 했어요~

글\_ 이한나

최근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문득 나는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나는 통일을 꿈꾸면서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작년 여름, 처음으로 통일을 꿈꾸게 되었다. 통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다. 정작 통일을 꿈꾸고 기다린다니면서 통일에 대해 준비하는 것 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 이후, 아주 작은 일부터 통일을 위해 차차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통일을 위해 준비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의 전공은 '언어치료학'이다. 최근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이 각광 받고 있다. 언어발달이 늦은 아이들, 말을 더듬는 사람들, 발음이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꿈을 갖게된 후로는 통일 이후의 언어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단 70주년,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북한에서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통일 이후에 바로 북한에 가서 언어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탈북자와 남한 사람의 발음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주의 깊게 보며 통일을 꿈꾸고 있다.

둘째, 통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처음에는 통일과 관련된 예능프로그램부터 보기 시작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애정통일 리얼리티 남남북녀'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북한의 모습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다. 그 후, '아주 궁금한 이야기(아궁이)'나 '황당하고 궁금한 알짜이야기(황금알)',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면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문화, 요리 등 여러 영역에 대해 조금씩 지식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재밌는 예능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들을 보다보니 나도 모르게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통일에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셋째, 중국을 통해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며, 북한에 대해 조금씩 지식을 넓혀 갔지만 무언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직접 북한을 볼 수 있는 중국으로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작년 여름 중국의 '심양'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쪽 북한을 따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백두산 천지'와 '압록강 철교' 등을 바라보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눈 앞에 바로 북한 땅이 있고, 분명 우리나라인데 갈 수 없고 함께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핑 눈물이 들었다. 그렇게 북한을 따라 중국에서의 5박 6일 여행을 마치며 나는 통일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위와 같은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통일을 준비해왔는데, 앞으로 꿈꾸는 일들은 취업 후 수입의 10% 정도를 탈북 청소년 지원에 사용하거나 탈북 청소년과의 멘토링하기, 'DMZ 트레인' 등이다. 이 글을 쓰며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꼭 거창한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갖는 아주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통일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이다. 그 이후, 통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 분단 70주년을 **행복한 통일**로 만드는 방법!

글\_ 이은혜

### 1. 언어익히기

같은 말 다른 뜻, 달라진 말들을 익혀야 오해가 줄어들어요.

### 2. 문화 익히기

북한의 또래가 어떤 문화를 즐기고 좋아하는 지 알아야 이해가 더 쉬워져요.

### 3. 분단의 이유 이해하기

왜 분단됐는지, 왜 70년간이나 계속되는지 원인도 생각해 봐야 해요.



#### 4. 통일의 문제점 생각하기

빈부격차나 부동산 문제, 교육, 식량 등의 문제를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해요.

#### 5. 이산가족 상봉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자주 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통일에 몰들다!

봄이 만연하여 봄꽃으로 물드는 모습을 볼 때,  
통일이 되어 함께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통일을 희망하시나요?  
통일에 물드는 그 순간을  
써주세요~~

**응모기간** 2015. 04. 17 ~ 2015. 05. 08

**발표예정일** 5월 셋째주

**응모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5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2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쉽표, 느낌표! | 틀린 그림을 찾아라!

# '훈훈한 통일' 속 **틀린** 그림을 찾아라!



아래 통일 이미지를 보시고,  
두 그림의 다른 점 3가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커피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5. 04. 17 ~ 2015. 05. 08

**응모방법** 위의 그림과 비교하여 아래 그림에서 다른 점을 세 군데 찾아,  
아래에 비밀댓글로 써 주세요.

**당첨자수** 20명

**발표예정일** 5월 셋째주

**시상내역**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모카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행복한 통일로 가는길'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070@naver.com	유재범
2	**yne@naver.com	이흥화
3	**llster@naver.com	최야



### '북한말 알아보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kurairo83@nate.com	가을을사랑한모모
2	**ddy3627@naver.com	너랑나
3	**ng_i@daum.net	우쭈쭈님
4	**veshine707@naver.com	쿡따라
5	**ndalrae-78@hanmail.net	노란소국
6	**tio@naver.com	씨니레드
7	**s055@hanmail.net	난국시대
8	**hy0326@naver.com	스마일포포
9	**uki035@naver.com	최재원
10	**o1205@hanmail.net	향기소녀
11	**a00196@naver.com	팀팀이
12	**nsyk@naver.com	은하수



13	**lie1205@naver.com	후니엄마
14	**aelarael@naver.com	라니니닝
15	**dlehddn@naver.com	글썸당
16	**aru2@naver.com	박지수
17	**surfer@naver.com	유슈
18	**bo2so@daum.net	봄
19	**dlqj456@nate.com	뿌악
20	**07860@naver.com	준똥맘
21	**ine89@naver.com	유난
22	**eebird0704@naver.com	자유새
23	**h902001@naver.com	이성혁
24	**ddl6026@naver.com	핑크송
25	**kd0720@naver.com	해피한체리
26	**tsluv88@naver.com	모모
27	**shan1046@naver.com	파페포포
28	**choi29@nate.com	최형민
29	**k0614@naver.com	으아으아
30	**dusdudn@naver.com	웃음맘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0hong@naver.com
2	**rud714@nate.com
3	**tistlyj@hanmail.net
4	**kjee@msn.com
5	**j2696@hanmail.net
6	**monism@naver.com
7	**s.vungtau@gmail.com
8	**lfoll@naver.com
9	**a7604@naver.com
10	**pe7677@hanmail.net
11	**kung@hanmail.net
12	**k1515@naver.com
13	**go1004@hanmail.net

14	**k5679@nate.com
15	**vehm84@naver.com
16	**535@hanmail.net
17	**rahkellybom@gmail.com
18	**y5911@hanmail.net
19	**1982ko@naver.com
20	**e6956@hanmail.net
21	**kksshot@hanmail.net
22	**ach0@naver.com
23	**sporter@hanmail.net
24	**sqntlsj@naver.com
25	**w2277@naver.com
26	**lfare@hanmail.net
27	**dnjs5617@naver.com
28	**y2329@naver.com
29	**sklsi@naver.com
30	**ejin@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